

# 산촌의 문제 해결

박 태 식 / 서울농대 교수

## 1. 산촌의 범위와 문제

우리가 흔히 농촌이라는 말로 도시 생활권의 반대되는 생활권을 지칭하고 있으나 농촌도 그 지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농촌은 지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세계의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① 평야지의 농촌, ② 평야지와 산간지의 중간지역의 농촌, 그리고 ③ 산간지의 농촌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산간지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산간지의 농촌은 일반적으로 산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으로, 산림의 면적이 70~80% 이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체로 평야지의 농촌은 산림면적이 30%이하, 중간지의 농촌의 산림면적률은 40~60%정도가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평균 산림면적률이 66%이므로, 산림면적률이 30%~60%정도인 지역은 넓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이 산간농촌(산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산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 제일 적은 것 같다. 농촌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정부의 시책을 보더라도

산촌의 문제를 다루려는 내용은 적다. 일반적으로 농촌의 문제를 다루는 시책은 내용은 평야지의 농촌과 중간지의 농촌에 치중되고 있다.

필자는 근래 산간지의 농촌 즉, 산촌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 일종의 산림의 다목적 경영을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강원도 인제군에 가서 몇일을 지낸 바 있다. 그 때 산촌에 머물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많다. 농촌문제를 알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계획하려면 그들과 같이 생활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탁상공론이 되기 쉬울 것이다. 필자가 이번 산촌에서 몇일 지내면서 산촌의 문제를 직접 듣고 보고 느낀 것 가운데서 산촌개발을 위하여 가장 절실한 것은 ① 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 문제 ② 노동력 문제 ③ 산림 부산물자원 증식 문제였다.

## 2. 산촌의 현황

필자가 갔던 곳은 지방간선도로에서 80리나 들어가는 산촌이었으나(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전기, 전화시설이 되어 있고, 그 곳까지 화물자동차가 왕래하며 농산물(채소)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지리적으로는 아주 산골이지만 전기,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문화시설은 가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 산촌의 주민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즉,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이고, 빚을 갚기 위하여 농사를 확대하려다가 또 가격이 하락해서 빚을 더 많이 지게 되었으며, 그나마 이제는 농사를 지으려해도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농사철 외에는 산에서 산림부산물(주로 산채와 약초)을 많이 채취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근간 무공해 식품이 선호되면서 타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입산하여 산채를 마구 채취해 가므로 산림 부산물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산림 부산물자원이 감소하여 농가소득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감소해가는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생산사업(표고재배 등)을 도입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곳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그곳은 옛날부터 약초를 재배하고 산초와 산의 약초를 채취하여 빚없이 살아왔는데, 5~6년 전 길이 나고 전기가 들어 오면서 수송이 쉬워지자 고냉지 채소재배기술이 도입되어, 채소재배에 전념하다 보니 가격이 불안정해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전기가 들어왔으니 자연스럽게 문화시설을 들여놓게 되고, 길이 났으니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을 구입하게 되는 등 소비가 많아졌다. 산촌을 잘 살게 하자고 실시한 시책은 역효과적으로 결과에 있어서는 마을을 빚덤위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지금 마을의 흠의 땅이 농업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농협의 땅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일정시대 때 농촌 갱신 사업을 하기 위하여 농촌에 빌

려준 돈을 갚지 못하여 저당했던 땅이 금융조합에 넘어 감으로써 농민은 땅을 잃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농민들은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는 또 빚을 내어 농사(채소)를 지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나, 노동력 부족과 높은 임금 때문에 많은 땅을 놀리고 있다. 80리의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보면 쭉대밭으로 변한 땅을 많이 볼 수 있다. 적지않은 주민이 마을을 떠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땅도 노력 부족으로 놀리고 있다. 과거에는 한 집에 5~6마리씩의 한우를 사육했으나 지금은 소를 키우는 주민은 없다. 산기슭에서 풀을 뜯는 소를 볼 수 없다. 고달픈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농민은 짙 마른 얼굴에 희망없는 표정으로 이곳의 산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불편 애원을 한다. 장가 못간 33살의 총각은 살려고 무단히 애써 장만했던 장가밑천은 고냉지채소재배로 다 날리고, 이제 늘어가는 것은 빚뿐이어서 일어서려는 기력을 잃었다고 하며, 이 고장에서의 살길은 표고를 재배하고 산채와 약초를 보존 증식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루 빨리 산림개발에 착수해줄 것을 역설했다.

필자는 이 산촌의 조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해마다 마을을 떠나는 주민을 산촌에 머물도록 하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마을에는 과거 30여호가 살았는데 현재 15~16여호로 감소되었다. 그것도 여름 동안 농사를 지을 때에만 그렇고, 농사철이 지나면 겨울 동안 마을을 떠나는 주민이 있으므로 농가수는 10여 호에 지나지 않는다. 산림의 일은 기계로 대체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므로 사

람의 힘이 필요하다. 인력이 모자라면 산림 개발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3. 산촌문제 해결방안

산촌의 문제는 앞서 말한 외에도 더 많고 해결방안은 정부차원에서 하여야 할 문제도 많다. 여기서는 정부차원이나 농업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루고, 다만 산림개발이라는 한정된 차원에서 산림 부산물자원의 보호 증식과 노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 ① 산림 부산물자원의 보호와 증식

이곳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산림 부산물로 으뜸가는 것은 송이와 산채 그리고 약초이다. 송이 채취시는기 8월 하순부터 9월하순~10월상순까지인데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하루 평균해서 3~4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송이 채취 수입이 많은 사람은 100여만원 이상을 올린다. 그런데 송이 채취를 공동으로 보호해가면서 채취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마구 채취하게 되어, 품질이 저하되고 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 산채는 4월부터 6월하순에 걸쳐 채취하고 약초는 4월부터 낙엽이 질때까지 연중 채취하는데, 산채를 많이 채취하는 농가는 일년에 100~200만원도 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50~6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약초 채취에 의한 수입도 비슷하다. 이곳 농민들에 있어서는 송이, 산채, 약초의 부산물의 수입은 농가소득의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현금수입이 되므로, 자녀의학비 조달에는 절대적인 수입원을 이루고있다. 그런데 송이, 산채, 약초 할것 없이 마구 채취하므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산림 부산물자원의 보호대책이 절

실하다. 산림 부산물자원의 보호대책은 쉽지 않다. 산이 넓어서 보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화방지등의 협력문제로 여러 마을에서 입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부산물자원의 보호증식에 대한 관심은 산하주민에게 많고, 산림에서 먼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다. 그러므로, 산에 입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합리적 대책은 산하주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산림 부산물을 보호하면서 채취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산하주민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입산료를 지불케한 다던가, 혹은 식재, 하예, 간벌등의 작업에 출역한 사람에게 입산증을 발부하여 산림 부산물을 채취케 하므로서, 타지역 사람들이 입산하여 송이, 산채, 약초를 마구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면 타지역 사람들에게 대한 입산금지의 불평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② 노동력의 확보

산촌에서의 노동력유출을 막으려면 산촌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산림에서 여러가지 목적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목적의 사업이 산림의 다목적 경영이다. 목재생산, 산림 부산물생산, 산채생산, 약초생산, 토종벌사육, 양축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도입에 연계되는 각종 현금 수입사업등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속되는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업단을 조직해서 노동훈련을 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촌 노동력을 확보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산밭에서 농사도 짓고 산림 사업도 할 수 있는 주민을 선발하여, 노동기술 훈련을 시켜서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단을 조직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농한기에는 계속해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유림이 많은 곳에서는 국유림의 직영사업을 많이 늘려서 작업단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즘은 산림작업도 산업재해보험에 들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산림작업자들이 산재보험에 들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면 안심하고 직영사업을 할 수 있어서 국유림의 직영사업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

## 私有林 협업경영 확대로 經營構造改善

- '97까지 300개의 協業體 育成키로 -

山林廳은 우리나라 山林面積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私有林이 그 所有規模가 零細하여 林業經營에 어려움이 많아 보다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經營을 爲해, 오는 '97년까지 127억원의 事業費를 支援하여 300개소의 私有林 協業體를 育成, 經營構造를 改善하고 林業投資를 活性化시키는데 기여키로 하였다.

우리나라 山林面積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私有林의 所有規模가 平均 2.4ha에 不過하여 林業經營 單位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韓·獨技術協力을 통하여 零細山主들이 힘을모아 協業經營을 實施함으로써 이들 零細山主가 林道施設이나 機械等の 장비를 共同으로 購入하여 各種 林産物의 생산과 판매를 共同으로 실시함으로써, 製반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하기위해 '74년부터 韓·獨技術協力 事業으로 慶南 울주에 私有林 協業經營事業을 시범적으로 實施한바, 그 成果가 매우 좋아 이를 모델로 하여 '84년부터 年次的으로 擴大普及하여 오는 '97년까지

지는 127億원의 事業費를 支援하여 300개소의 協業體를 育成한다고 밝히고 있다.

推進方針으로는, 一定規模의 山林(面單位)을 對象으로 山主自律加入에 의한 協業體를 組織하고, 造林, 育林, 林道, 伐採等 自律施業은 물론 販賣까지도 共同으로 實施되도록 定着시키기 위하여 專門指導員으로 하여금 山林經營技術을 集中指導하고 있다.

따라서 山林廳에서는 '84년부터 現在까지 協業經營을 實施한 結果 山主들의 參與에서는 年間 約 4倍(1,226→4,608名)로 增加하였고, 經營的인 側面에서는 林道施設 擴充과 林業機械化로 木材生産費를 節減함으로써 間伐收入에는 所得이 ha當 322千원에서 767千원으로 增加 效果를 가져 오기 때문에 앞으로 林業振興促進地域을 對象으로 擴大하여 協業經營 指導所는 山林組合으로 一元化해서 積極 推進할 計劃이라고 밝히고 있다.